

주제전문사서와 주제전문서비스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연구*

- ‘의학용어와 MeSH’, ‘보건의학정보원’ 수강생 대상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

A Study on Improving Perception of Subject-Special Librarian and Subject-Special Services: Focusing on Survey Targeting Students Who Take ‘Medical Terms and MeSH’ and ‘Health & Medical Information Sources’

오 의 경 (Eui-Kyung Oh)**

목 차

- | | |
|--------------------------|--------------------------------|
| 1. 서론 | 4. 상명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과목 개발 및 운영 사례 |
| 2. 주제전문사서 양성 방안에 관한 문헌조사 | 5. 주제전문사서와 주제전문서비스에 대한 인식 조사 |
| 3. 주제전문사서 양성 교육 사례 | 6. 결론 및 논의 |

초 록

본 연구는 주제전문사서 양성을 위하여 문헌정보학과 교육과정에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필요성을 바탕으로, 이러한 교육이 주제전문사서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진로결정 의사능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을 증명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대표적인 주제전문사서 양성 사례들을 조사하였다. 둘째, 상명대학교의 ‘의학용어와 MeSH’, ‘보건의학정보원’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주제전문사서와 주제전문서비스에 대한 인식 제고, 진로 결정능력 향상 등을 설문 조사하였다.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응답자 대부분이 의학사서와 의학정보서비스의 필요성을 인지하고(88.7%), 의학사서의 역할을 이해하며(92.5%), 의학정보서비스의 유형과 기능에 대하여 더욱 잘 알게 되었으며(100%), 전문직으로써 의학사서에 대한 자부심을 더욱 더 자각하게 되었다(83%). 둘째, 의학도서관으로의 취업의사를 갖거나(45.3%) 의학정보서비스 업무 담당 의사를 보인(26.4%) 응답자는 앞의 다른 질문의 응답자 수보다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교과목 수강 여부, 수강 과목의 수, 학년에 따른 통계적인 차이는 없었고, 의학사서와 의학정보서비스에 대한 이해도 면에서는 수강자가 비수강자보다 높았고, 의학사서 취업 의사에 있어서는 비수강자가 수강자보다 다소 높은 수준을 보여주었다. 넷째, 문헌정보학과 교육과정 안에서의 교육은 지식습득에는 효과적이지만 취업 의사나 진로결정의 부분에서는 오히려 조심스러운 입장을 갖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의학주제에 대한 어려움과 낯설음을 극복할 수 있도록 교과목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based on the need for department of LIS education program that targets training of subject-special librarian, focuses on proving that such education can improve perception of subject-special librarian and strengthen career decision-making. This study is composed of two parts. First, this study investigates case studies about subject-special librarian cultivation. Second, this study includes a survey about subject-special librarian, improving understanding about subject-special librarian, and improving career decision-making which was carried out targeting students who take ‘Medical Terms and MeSH’, and ‘Health & Medical Information Sources’ course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most of the respondents felt the need for medical librarian and medical information services (88.7%), understood the role of medical librarian (92.5%), got to know more about the types and functions of medical information services (100%), and came to be more aware of the self-esteem a medical librarian feels as a professional. Second, relatively, the percentage of respondents who demonstrated the willingness to work at a medical library (45.3%) or work in the field of medical information services (26.4%) was noticeably low. Third, there were no statistical difference in whether the students took related courses or not, number of courses they took and difference in their school year, and in regard of the level of understanding of medical librarian and medical information services, those who took courses demonstrated higher understanding than did those who did not take those courses. Also, those who took the courses showed stronger willingness to work as a medical librarian. Fourthly, the curriculum carried out by the departmen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 was effective in understanding medical librarian and medical information services, but makes students more cautious about deciding whether or not to start their career at a medical library. Lastly, it was recommended that there is a need to have the curriculum updated in order to help students overcome the difficulty and unfamiliarity they feel about medical subject.

키워드: 주제전문사서, 주제전문서비스, 의학사서, 의학정보서비스, 주제전문사서양성
Subject-special Librarian, Subject-special Services, Medical Librarian, Medical Information Services, Subject-special Librarian Cultivation

* 본 연구는 2014학년도 상명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상명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조교수(ohui@smu.ac.kr)

논문접수일자: 2016년 1월 26일 최초심사일자: 2016년 1월 26일 게재확정일자: 2016년 2월 17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0(1): 437-456, 2016. (<http://dx.doi.org/10.4275/KSLIS.2016.50.1.437>)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주제전문사서는 '특정 주제 분야에서 고도의 지식을 소유하고 관련 주제영역의 자료를 선정, 평가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아울러 정보서비스와 서지업무를 담당하는 도서관 직원'을 의미한다. 도서관계와 문헌정보학계에서는, 전문도서관과 대학도서관의 학과별 주제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정보통신기술의 지속적인 발전과 이에 따른 이용자 정보요구의 다양화, 학문의 전문화·세분화 환경에 적극적으로 응대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왔다.

주요한 연구 영역으로는 주제전문사서 양성 방안 및 교육과정 개발 연구, 주제전문사서에 대한 인식 제고 방안 연구, 주제전문사서의 직무분석 연구, 주제전문서비스를 위한 협력 모델 제시, 그리고 의학, 법학과 같은 전문사서와 전문서비스에 대한 연구 등이 있었고, 이러한 연구들은 주제전문사서 양성과 주제전문서비스의 다양한 가능성을 제공하였고 적용 가능한 방안을 제안해 왔다(남영준, 허운순 2005; 노영희 외 2008; 안인자 외 2008; 2009; 황재영 2011; 최홍식 2012; 변제연 2012).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주제전문서비스를 위해서는 적합한 역량을 가진 주제전문사서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현재의 주제전문사서는 취업 후 국립중앙도서관, 전문협회 등의 재교육을 통하여 전문지식을 습득해 나가면서 역량을 갖추는 것이 보편적인 관행이어서, 도서관의 운영, 이용자 서비스, 도서관 직원 관리에 있어서 비효율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우리나라의 문헌정보학 교육과정에서는, 사서들은 4년제 대학의 문헌정보학과에서 4년간 도서관 및 문헌정보학의 이론과 정보서비스 기술 등을 학습하여, 정사서 2급의 자격을 갖추게 된다. 졸업 요건은 학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단일 전공의 경우 50~60학점 수준으로, 특정 주제(예를 들어, 의학, 법학 등)에 집중하여 서비스 역량을 구축할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 스스로 진로에 대한 명확한 주관을 갖고 상황을 인식한 후, 필요한 주제와 학과를 찾아 복수전공, 다전공, 연계전공 등을 활용해야 한다. 그러나 학사제도를 활용할 경우, 주전공인 문헌정보학에 대한 졸업 학점 수가 하향 조정되고, 결국 문헌정보학에 대한 충분한 학습기회를 갖기 어렵다는 문제도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학사제도의 활용은 무제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학점, 수용 정원, 교과과정 등 많은 요소가 개입됨으로, 모든 학생이 자유롭게 선택하여 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문제점도 지닌다. 4년제 대학 문헌정보학과에서의 특정주제에 대한 교육은 일부 대학에서 3~6학점 정도 특정 주제 전문성과 서비스에 대하여 교육하고 있는 정도이다. 결과론적으로 학생들은 정보서비스 전반에 대한 지식과 기능은 습득하지만, 특정 주제에 집중된 교육을 받지는 못하고 있어서, 주제전문사서와 주제전문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구체적이지 않고, 진로 결정에 있어서 의사 표시를 분명하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기도 하다.

본 연구는 현재와 같은 사서교육 환경에서, 특정 주제에 대한 전문지식과 서비스를 다루는 학부(학과) 교과목을 편성, 운영하였을 때, 학생들의 주제전문사서와 주제전문서비스에 대

한 인식 제고에 도움이 되었는지, 진로에 대한 의사 결정을 내리는데 영향을 주었는지 등에 대한 탐구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1.2 연구의 내용과 방법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연구의 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제전문사서 양성에 대한 연구들을 조사하여, 시사점을 분석한다.

둘째, 현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제사서 양성 방법을 조사한다. 주제사서양성 방법의 사례로 1) 국립중앙도서관 사서교육문화과의 교육 훈련 프로그램, 2)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 의학사서 자격제도에 따른 재교육 프로그램, 3) 전국 대학법학도서관협의회 학술세미나, 전문교육, 총회 등을 통한 재교육 프로그램, 4) 4년제 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육과정 중 특정주제전문서비스 교과목 운영 사례를 조사한다.

셋째, 문헌정보학과 전공교과목으로 의학 주제에 대한 교과목을 수강한 상명대학교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교과목 수강을 통하여 주제전문사서와 주제전문서비스에 대한 인식 제고, 주제전문사서(전문도서관)로 진로 결정에 도움이 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더불어, 비수강 학생들의 주제전문서비스에 대한 이해 및 인식 정도를 조사하여, 수강생들과의 차이를 분석한다.

2. 주제전문사서 양성 방안에 관한 문헌조사

강미혜(2002)는 주제전문사서의 양성방안으

로 흔히 부전공, 복수전공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으나, 문헌정보학 전공교과목내에서의 접근 가능성부터 시도해 봐야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주제서지' 과목의 과제를 통하여 주제전문사서 양성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법률학과 로푸드서관을 사례로 연구하였다.

윤영대(2003)는 의학사서 교육제도와 주제전문사서에 대한 외국 사례와 우리나라의 제도를 비교하고, 의학사서의 정규양성과정, 의학사서의 계속교육과 의학사서 자격프로그램에 등을 제안하였다. 특히, 외국의 경우처럼, 문헌정보학 교육을 대학원 과정으로 변경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학부 문헌정보학과 교과과정에서 가능한 의학도서관 과목을 개설하여 의학주제 배경을 많이 갖출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김희출(2003)은 대학도서관의 통합형 디지털참고봉사를 위한 기반 연구에서, 주제전문사서 양성, 이용자 친화형 인터페이스, 프로그램 개발 관리 기관 설립 등을 필요한 요소임을 밝히고, 이 중에서도 주제전문사서 양성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하였다. 주제전문사서 양성 방법으로는 도서관들이 분담하여 분야별로 주제사서를 양성하고 이들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홍명자(2006)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와 함께, 법학전문도서관의 설립이 가시화됨에 따라, 법학전문도서관의 인가기준내용을 분석한 연구에서, 법률전문사서의 확보 방안으로 법학과 도서관·정보학 분야의 학사 혹은 석사학위를 지닌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것은 장기적으로 주제전문사서의 양성에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정재영(2007)은 주제전문사서의 양성을 위하여, 도서관 관련 주제들 즉, 기관·단체 및 협회, 학계, 도서관 현장이 협력하는 모형을 제시한 연구에서, 학계에서는 주제전문사서 양성의 주체로 다양한 주제전문사서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학사제도의 활용, 대학 특성화를 통한 주제교육 역할 분담, 현장의 인력을 지원 받는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최근 노영희 외(2015)는 정책정보자원의 협력적 구축 및 정책정보전문사서 양성 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정책정보전문사서 양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정책정보 서비스 경험이 있는 사서들의 정보를 확보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이들의 교육을 위하여, 교육과정, 분류체계, 정책정보자료 유형, 정책분야별 주제서지 등을 발굴, 개발하고, 교육의 방법과 절차(안)이 유기적으로 운용되어야 함을 보고하였다.

문헌조사를 통하여 살펴볼 때, 주제전문사서 양성에 관하여 학부교육과정에 주제지식과 서비스를 교육하여야 한다는 입장과 별도로 주제전문사서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시스템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전자의 경우, 법률, 의학과 같은 특정 주제 서비스를 위한 심화된 교과목을 배치해야 한다는 입장과 주제서지를 교육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으로 다시 세분된다. 이러한 연구들은 방법적으로 학부에서의 교육을 제안하고 있으나, 실제 주제전문사서에 대한 인식, 진로 결정 영향력 등 교육의 효과를 검증하지는 않았다. 후자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문헌정보학의

교육 환경에서는 특정 주제만을 전달할 사서를 양성하기 어려운 형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특정 주제 서비스를 해 본 경험이 있거나 해야 하는 직원들에게 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주는 것을 적절한 방안으로 간주하는 입장이며, 현재 진행되는 주제사서 교육의 보편적 시스템으로 볼 수 있다. 현재의 시스템을 개선·발전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제안되었던 학부교육과정에서의 교육에 대하여 사례와 효과를 검증해 보는 것은 가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주제전문사서 양성 교육 사례

3.1 국립중앙도서관 사서교육¹⁾

국립중앙도서관 사서교육문화과는 도서관법 제 19조 제 1항 제 5호 '도서관직원의 교육훈련 등 국내도서관에 대한 지도·지원 및 협력'에 의거하여 사서와 도서관 직원들의 역량 개발과 강화를 위한 교육을 수행하고 있으며, 연간 사서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실시, 교육훈련성과 분석 및 통계관리, 각종 도서관 직원 등의 연수 운영, 교육코스웨어 개발 및 사이버교육 운영, 사서교육훈련과정 개발 및 교재 발간, 대학생의 도서관 실무수습지도에 관한 사항, 각종 도서관 직원 국외연수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사서교육문화과의 2015년 월별 사서교육훈련 일정을 참고하면, 2015년 3월부터 11월까지,

1)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사서교육홈페이지 <http://edu.nl.go.kr>의 '공지사항 > 교육계획' 게시판

총 87과정이 104회에 걸쳐 실시되었고, 11,300명(집합 56과정 64회, 사이버 31과정 40회 / 기본 1개 과정 1회, 전문 81과정 92회, 기타 5과정 11회)이 참여하였다. 87과정 중, 주제전문사서 역량과 관계되는 교육과목은 '주제전문사서기초(심리학)', '주제전문사서기초', '주제전문사서기초(법학)', '주제전문사서준비' 등 4개이며, 이들 중 '주제전문사서기초(심리학)', '주제전문사서기초(법학)'의 2개의 교과목(1개 과정)이 특정 주제전문 교과목이며 각각 3일씩 40명 정원의 집합교육으로 진행되었다.

2016년 사서교육 일정(안)을 보면, 2016년에는 총 90과정이 105회에 걸쳐 수행될 예정이다(집합 54과정 63회, 사이버 32과정 42회). 이 중 주제전문사서 관련 교과목은 '주제전문사서기초', '주제전문사서(예술)'이며, 전자는 사이버 강좌로 2일간 200명을 대상으로 하며, 후자는 집합교육으로, 40명의 교육인원을 대상으로 3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특정 주제에 관한 교과목으로는 '주제전문사서(예술)' 한 과목만 계획되어 있으며, 이 교과목에서는 각 예술 주제의 이해, 예술분야 참고정보원 및 주제전문서비스 운영사례, 주제의 이해 및 이용자 분석, 커뮤니케이션스킬 등 기본적인 서비스 기술 습득훈련을 그 골자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이 주도하는 사서 교육 프로그램 내에 주제전문서비스 기술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과목들과 일부 주제에 대한 전문지식을 구축할 수 있는 과목들이 포함되어 있으나, 매우 한정적이다.

3.2 한국의학도서관협회 의학전문사서 자격제도에 따른 재교육 프로그램²⁾

한국의학도서관협회는 민간 자격제도인 의학전문사서 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의학전문사서 자격제도는 의학사서들의 지속적인 전문성 구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재교육을 목표로 계획된 제도이며, 자격심사 평가항목에는 '교육'이라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교육'항목의 세부내용으로는 한국의학도서관협회가 주관하는 '의학용어강좌', '의학주제강좌', 'MeSH 강좌', 'Work Shop', '추계학술대회', '세미나'가 있으며, 이외에 도서관 관련단체의 교육, 문헌정보 및 관련 과목 학점 이수, 석·박사 학위 취득 등이 교육 세목에 해당한다. 교육은 한국의학도서관협회 회원 기관의 재직 사서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특히 '의학용어강좌'와 'MeSH 강좌'는 수년간 꾸준히 실시되고 있다. 이 두 강좌의 최근 몇 년간(2013년~2016년 현재)의 운영 세부 사항은 <표 1>과 같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한국의학도서관협회 회원기관의 재직 사서들을 대상으로 의학주제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의사(의대교수)와 다년간의 의학정보서비스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의학사서들이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과목의 수는 2개로 한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20시간가량의 집중 교육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교육 수행 여부를 의학사서의 전문 요건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2) 출처: 한국의학도서관협회 홈페이지 <http://www.kmla.or.kr/>의 '회원마당' > 공지사항' 게시판, 한국의학도서관협회 사무국

〈표 1〉 ‘의학용어강좌’와 ‘MeSH 강좌’ 운영 세부 사항 (2013~2016)

의학용어 강좌	강좌명	의학사서를 위한 Basic Medical Terminology	기초의학에서 접근하는 의학 용어	임상의학에서 접근하는 의학 용어
	강사	의사(의대교수)	의사(의대교수)	의사(의대교수)
	교육기간	2013년 10월 25일 ~ 12월 27일 주 1회 8주 총 20시간	2015년 1월 9일 ~ 2월 7일 주 1회 8주간 총 16시간	2016년 1월 7일 ~ 2월 25일 주 1회 총 8주 16시간
	교육대상 및 교육비	회원: 150,000원 비회원: 200,000원	회원: 150,000원	회원: 150,000원
MeSH 강좌	강좌명	MeSH Indexing 중급과정	MeSH 색인 및 초·중급 교육	MeSH 색인 전문가 양성 교육
	강사	의사(의대교수) 의학사서	의사(의대교수) 의학사서	의사(의대교수) 의학사서
	교육기간	2013년 5월 9일 ~ 7월 18일 주 1회 8주 총 16시간 (별도로 Homework 3회)	2014년 12월 13일 오전 10시 ~ 오후 3시 (4시간)	2015년 8월 19일 ~ 9월 2일 2주간 ① 기초과정: 24시간 (MeSH 교육) ② 중급과정: 16시간 (MeSH 문제풀이와 실습) ③ 고급과정: 8시간 (MeSH 색인 실전)
	교육대상	① 의학사서 및 보건과학분야 전공자 ② MeSH Indexing 초급과정을 이수한 자로 MeSH Indexing 실무가 가능한 자	회원	① 의사 ② 간호사(석사학위 이상 혹은 임상경력 2년 이상) ③ 의학사서(석사이상 혹은 의 학도서관 경력 2년 이상) ④ 생물학관련전공자(석사학위 이상)
	교육비	무료	무료	무료

3.3 전국대학법학도서관협의회 정기 학술 세미나를 통한 재교육 프로그램³⁾

전국대학법학도서관협의회는 2008년 창립되었고, 2009년 이후 2015년까지 7차례의 학술세미나의 개최, 법률정보전문가 교육 등을 시행하여 법학 주제전문서비스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의 교육프로그램과 같이 교

과목을 개설하여 집중적인 시간을 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률 및 법학계의 동향과 법률서비스의 신기술 동향을 그 내용에 포함하고 있어서, 법학사서들의 주제전문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는 바가 적지 않다. 〈표 2〉는 대학법학도서관협의회의 학술세미나 및 교육행사의 일부 내용으로, 재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을 짐작해 볼 수 있다.

3) 출처: 전국대학법학도서관협의회 홈페이지 <http://www.klla.org>의 ‘행사 및 활동기록’ 카테고리

〈표 2〉 대학법학도서관협의회 학술세미나 및 교육행사 내용 (2011~2015)

제3회 학술세미나	일시	2011년 8월 18일 ~ 19일
	내용	① 법률 및 법학 관련 지식: 법학전문대학원 관련 평가기준 동향 법학도서관평가기준 개선방향 ② 법률 정보 이해와 활용 국내외 법률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신기술 동향: 로앤비, 톰슨로이터, EBSCO, CNC
	강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도서관 사서, 협력업체(도서관벤더)
대학도서관 법률정보 전문가 과정	일시	2012년 5월 23일 ~ 25일
	내용	① 법률 및 법학 관련 지식: 한국 법률 체계 및 최근 민법 동향 미국의 법률체계 및 최근 상법 동향 WTO/FTA와 국제경제법 미국 법률 검색 및 활용 ② 법률정보 이해와 활용: 아이로(iLAW)를 활용한 법제정보의 활용방법 로펌도서관의 법률정보조사서비스 법률정보 이용자교육 사례
	강사	법학과 교수, 법무부 연구관, 국회도서관 법률자료조사관, 법학도서관 사서, 법무법인 소속 사서
제5회 학술세미나	일시	2013년 8월 22일 ~ 23일
	내용	① 법률 및 법학 관련 지식: 법학전문도서관의 현황과 개선방안 국회법률도서관과 협업체 활성화 방안 ② 법률정보 이해와 활용 디지털 큐레이션 기반의 도서관 서비스 영남대학교 Legal Research 이용자 교육 사례 국내외 법률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신기술 동향신기술동향(Westlaw Next, LexisNexis)
	강사	법학과 교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KERIS 연구원, 국회도서관 사서, 국회도서관 법학도서관 사서, 협력업체(도서관벤더)
제6차 전국대학법학도서관 협의회 정기총회	일시	2014년 2월 27일 ~ 28일
	내용	① 법률 및 법학 관련 지식: 연세대학교 법학도서관 주제전문서비스 현황과 사례 ② 법률정보 이해와 활용: WestlawNext 와 Westlaw International 비교
	강사	법학도서관 사서, 협력업체(도서관벤더)
제7회 전국대학법학도서관 협의회 세미나	일시	2015년 8월 28일
	내용	① 법률 및 법학 관련 지식: 법학도서관 사서를 위한 저작권법 ② 법률정보 이해와 활용: 변호사와 법학전문대학원생의 법률 정보 추구 행태 FiscalNote 소개
	강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회도서관 법률자료조사관, 협력업체(도서관벤더)

3.4 4년제 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육과정 내 교육

전국의 4년제 대학 문헌정보학과는 모두 35개교이며(2급정사서 교육기관 기준), 대부분 정보서비스, 주제별정보원, 인문과학정보원, 자연과학정보원 등의 전통적인 주제서비스 관련 교과목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 주제에 대한 지식 혹은 특정 주제에 대한 정보 활용 등에 대한 교과목을 설치한 학교는 전남대학교, 청주대학교, 상명대학교 등 3개교이며, 전남대학교는 의학과 법률의 2개 주제, 청주대학교와 상명대학교는 의학 주제를 다루고 있다. 3개 학교가 개설하고 있는 교과목명과 교육내용은 <표 3>과 같다.

현재 우리나라 문헌정보학과는 특정 주제에

대한 교과목 개발 사례가 드물며, 위의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부 사례도 모두 의학과 법학에 한정되어 있다. 교과목의 교육대상은 전남대학교와 상명대학교는 3학년, 청주대학교는 4학년으로,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저학년에서 기초/필수 전공교과목을 수강한 후, 진로 결정이나 취업 적성을 고려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할 수 있다.

4. 상명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과목 개발 및 운영 사례

상명대학교는 학과별로 CDR(Career Development Roadmap)⁴⁾을 개발하여 학생들의 학업과 진로지도에 활용하는 교육정책이 수립되

<표 3> 주제전문교과 운영 대학의 현황

대학교	교과목명	학점	대상 학년 학기	교과목 개요
전남대학교	법률특허정보실습	3	3학년 1학기	법률, 특허정보의 개념과 특성, 법률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조, 법률정보의 용어 및 조직, 법률정보의 이용자 등에 관한 제반 내용을 연구하고 실습한다.
	과학의료정보실습	3	3학년 2학기	과학, 의학정보의 개념과 특성, 의학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조, 의학정보의 용어 및 조직, 의학정보의 이용자 등에 관한 제반 내용을 연구하고 실습한다.
청주대학교	의과학전문용어해설	3	4학년 1학기	★
	의과학전문색인 및 검색	3	4학년 2학기	★
상명대학교	의학용어와 MeSH	3	3학년 1학기	기초 의학용어를 학습하고, 의학문헌색인 도구인 MeSH의 이론을 배우고, 이를 바탕으로 실습한다.
	보건의학정보원 (캡스톤디자인)	3	3학년 2학기	보건의학분야 정보원을 조사, 탐색, 평가하여 보건의학분야 정보원 활용 능력을 확장한다.

출처: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청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상명대학교 문헌정보학과 홈페이지 교육과정표.

★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홈페이지에는 교과목 개요에 관한 정보를 찾을 수 없어, 기재하지 않음.

4) CDR은 Career Development Roadmap의 약어이며, 학부(과) 전공단위별로 해당 전공을 통하여 진출할 수 있는 분야를 선정하여 분야별 전략적 교육과정을 로드맵하여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자신의 미래에 대한 뚜렷한 목표를 가지게 함과 동시에 학생 스스로 본인의 경력을 개발하고, 미래를 설계하여 전문 직종으로의 취업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경력개발프로그램으로, 상명대학교의 학사 제도 중 하나이다.

(출처: 상명대학교 홈페이지 https://www.smu.ac.kr/mbs/smu/subview.jsp?id=smu_040302030000)

어 있고, 학과마다 특성화 과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문헌정보학과는 CDR의 종합편성과 더불어 특성화 과제로 의학사서 양성 교육을 설정하였고, 이를 실천하는 첫 번째 단계로 의학주제의 주제지식과 정보서비스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과목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교과목은 '의학용어와 MeSH'와 '보건의학정보원' 2개 교과목이다. 교과목 개발은 학과 교수회의를 통한 교과목의 방향성과 학점 수/시간 결정, 한국의학도서관협회 교육과정 참조,

20년 이상 경력 의학사서 2인의 자문 등 3단계 과정을 거쳐 완성되었다. 2015년 1학기에 '의학용어와 MeSH', 2015년 2학기에 '보건의학정보원'이 개설되었다. 이 교과목들의 강의 방법, 강의 내용, 실습 내용 등 운영 개요는 <표 4>와 같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학용어와 MeSH'는 2개의 모듈, 즉 의학용어 모듈, MeSH 모듈로 구성되어 있고, 의학용어 모듈의 경우에는 의학드라마 '그레이아나토미'를 활용하여 생소

<표 4> '의학용어와 MeSH', '보건의학정보원' 교과목 운영 개요

의학용어와 MeSH	강의 내용	• 기초 의학용어 학습 • 의학분야 대표 통제어휘 MeSH의 이해와 활용
	운영 방법	• 2개의 모듈로 운영 - 모듈 1: ① 그레이아나토미 속의 의학용어 학습(매 주 1시간, 6주간) ② Body System에 따른 의학용어 학습(매 주 1시간, 6주간) - 모듈 2: ① PubMed 기본 기능 숙지와 MeSH 개요 이해 ② MeSH record 이해 ③ MeSH 구조 이해(Main Heading, SubHeading) ④ MeSH 부가 기능 활용(Online Search, MeSH on Demand) ⑤ 의학문헌 색인 실습(매 주 3시간, 마지막 3주간)
	참고사이트	• MeSH Database. http://www.ncbi.nlm.nih.gov/mesh • MeSH Online Training. http://www.nlm.nih.gov/bsd/indexing/training/USE_010.html
	수강 인원	37명
보건의학정보원	강의 내용	• 의학분야 핵심 정보원의 특징과 활용법 학습 및 실습 • 유용한 정보원의 발굴
	운영 방법	• 4개의 모듈로 운영 - 모듈 1: 의학정보 DB 이해와 활용: PubMed, KoreaMed, KMBase, KoreaMed, NLM 계열 DB들(매주 이론 1.5시간, 실습 1.5시간, 6주간) - 모듈 2: 의학분야 인용색인 활용: SCI, SCOPUS, JCR, KoMCI, Synapse(매주 이론 2시간, 실습 1시간, 2주간) - 모듈 3: EBM DB(이론 2시간, 실습 1시간, 1주간) - 모듈 4: ① MedlinePlus, 국가건강정보포털 ② 소비자건강정보주제가이드 작성(캡스톤디자인과제 수행: 소비자건강정보원 발굴 -> 지식구축 -> 전자책으로 발행 -> 교내 캡스톤경진대회 출전, 마지막 5주간)
	수강 인원	38명

함을 없애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의도하였다. 의학적 체계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으나, 교과목이 목표하는 것이 모든 의학용어를 정확하게 익히도록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의학용어 조합원리와 기초적인 의학 상식의 습득과 익숙함을 지향하기 때문에, 시도해 볼만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MeSH 모듈의 경우에는 PubMed의 기본기능을 선행시켜서, 탐색 결과로부터 MeSH 구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후에 통제어휘로서의 레코드의 구성과 전체 어휘 구조에 대하여 학습하였고, 이들을 바탕으로 의학문헌 색인 실습 과정을 거쳤다.

‘보건의학정보원’은 보건의학분야 핵심 정보원을 발굴하고, 활용방법을 익혀, 장차 보건의학사서로서 정보서비스를 수행할 때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일차적 목표가 있으며, 또한 캡스톤디자인⁵⁾의 과제를 수행하는 목표도 가지고 있다. 캡스톤디자인 수행과제는 2015학년도에서는 국내 소비자건강주제의 가이드북을 작성하는 것이었고, 수강생들은 다양한 정보원 리뷰, 실습 과정에서 소비자건강주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으며, 자발적으로 정보원을 탐색하여, 가치 있는 정보원을 선택하고, 간단한 해제를 하였으며, NLM Classification 기호의 부여, 키워드의 선정, 키워드의 MeSH matching 등을 거쳐 책자형 가이드북을 작성하였다.

교과목들은 각각 37명, 38명의 학생이 수강하였고, 3학년 대상의 교과목이지만 개설 초기

의 학생들의 호기심을 충족시켜 주기 위하여, 엄격하게 학년을 제한하지 않았고, 교과목들 간의 수강 순서도 정하지 않았다.

5. 주제전문사서와 주제전문서비스에 대한 인식 조사

5.1 조사내용 및 방법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명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의 교육과정에는 정보서비스론, 주제별 정보원 등 전통적인 주제전문사서 양성의 핵심 과목들이 2~3학년에 배치되어 있어, 주제전문사서의 윤리와 직무기술 등을 학습할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으나, 그러한 과목만으로는 주제전문사서 고유의 주제전문성과 주제전문정보서비스 역량을 구축하기에는 구체성이 부족하다 판단하여, 의학에 대한 주제지향성이 명확한 교과목을 개발하였고, 지난 1년간 2학기에 걸쳐 운영한 것이었다.

이러한 특정 주제전문사서 교육에 집중된 교과목을 통하여 학생들의 주제전문지식 수준이 높아질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주제전문사서와 주제전문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진로결정의사를 분명하게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고, 이것은 주제전문사서 양성의 중요한 성과로 판단하였고,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문항의 구

5) 상명대학교는 산학연계를 지향하는 방안으로써, 3~4학년 대상의 전공선택 교과목 중 일부를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보건의학정보원’은 문헌정보학과 의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으로,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는 주제’ 혹은 ‘연구 지향적인 주제’를 선정하여 프로젝트 형식으로 수행하고, 결과물을 도출하여, 교내 경진대회에 출전하도록 되어 있다.

〈표 5〉 설문 문항의 구성

인적사항	학년(수강학기 기준 이수 학기)
수강동기	시간표 작성이 용이 진로 결정과 관련하여 관심이 있어서 전공에 대한 지식과 경험 축적을 위해서 기타
수강 후 의학사서와 의학정보서비스에 대한 인식 정도	의학사서와 의학정보서비스 필요성 이해 정도 의학사서의 역할 이해 정도 의학정보서비스의 유형과 기능에 대한 이해 정도 의학도서관 취업 의사 증가 정도 전문직으로서 주제전문사서의 자부심 인식 정도

성은 〈표 5〉와 같다.

설문대상은 ‘의학용어와 MeSH’(2015학년도 1학기 3학년 전공선택 교과목), ‘보건의학정보원’(2015학년도 2학기 3학년 전공선택 교과목) 수강생으로, 2개 교과목의 수강인원은 각각 37명, 38명으로 모두 75명이나, 이들 중 2개 과목 모두를 수강한 학생은 14명으로, 최종 설문대상 인원은 61명이었다. 2학기 종료 직후인 2015년 12월 18일부터 19일까지 온라인으로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61명 중 53명이 응답하여 설문 회수율은 86.9%로 나타났다. 또한 비수강생들의 주제전문사서와 주제전문서비스에 대한 인식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한 조사도 진행하였다.

회수된 응답들은 첫째, 응답자 현황(학년, 수강 과목 수, 수강동기) 통계, 둘째, 주제전문사서와 주제전문서비스에 대한 인식조사, 셋째, 응답자 현황에 따른 주제전문사서와 주제전문서비스에 대한 인식 차이 분석, 넷째, 비수강생의 주제전문사서와 주제전문서비스에 대한 인식과의 비교 등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5.2 조사결과

5.2.1 응답자 현황

응답자의 학년, 수강 교과목 수, 수강 동기 등 일반 현황을 분석하였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61명 설문대상자 중 응답자 53명의 구성은, 2학년 3명(5.7%), 3학년은 22명(41.5%), 4학년은 28명(52.8%)으로 4학년 학생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응답자 중 40명은 1개 교과목을 수강하였으며(75.5%), 13명은 2개 교과목을 모두 수강하였다(24.5%).

교과목을 수강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는, ‘전공에 대한 지식과 경험 축적을 위해서’라고 답한 응답자가 2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41.5%), 다음으로 ‘시간표 작성이 용이해서’ 18명(34.0%), ‘진로결정에 관심이 있어서’ 13명(24.5%)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교과목 수강 전에 주제전문사서(의학사서)로 진로를 고민한 경우는 많지 않았고, 다만 새로운 교과목에 대한 호기심, 관심, 경험축적 등을 이유로 수강한 것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응답자의 학년, 수강 교과목 수, 수강 동기 등을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표 6〉 응답자 현황(학년, 수강 교과목 수, 수강 동기)

조사 항목		응답자 수 (%)
학년	2학년	3 (5.7)
	3학년	22 (41.5)
	4학년	28 (52.8)
	합계	53 (100.0)
수강 교과목 수	1과목	40 (75.5)
	2과목	13 (24.5)
	합계	53 (100.0)
수강 동기	시간표 작성이 용이	18 (34.0)
	진로 결정과 관련하여 관심이 있어서	13 (24.5)
	전공에 대한 지식과 경험 축적을 위해서	22 (41.5)
	기타	0 (0.0)
	합계	53 (100.0)

5.2.2 의학사서와 의학정보서비스에 대한 인식 변화 결과

의학사서와 의학정보서비스에 대한 인식 수준을 조사하기 위하여, 첫째, 의학사서와 의학정보서비스 필요성 이해 정도, 둘째, 의학사서의 역할 이해 정도, 셋째, 의학정보서비스의 유형과 기능에 대한 이해 정도, 넷째, 의학도서관 취업 의사 정도, 다섯째, 전문직으로서 주제전문사서의 자부심 인식 정도를 조사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으로,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지 않다’ 5점으로 답하도록 하였고, 각각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수행하여 결과를 제시하였다.

(1) 의학사서와 의학정보서비스 필요성 이해 정도

의학사서와 의학주제전문서비스의 필요성 이해 정도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 의학사서와

의학주제전문서비스의 필요성을 더욱 잘 이해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 9명(17.0%), ‘그렇다’ 38명(71.7%), ‘보통이다’ 6명(11.3%)으로 분포되었고,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전혀 없었다. 교과목 수강이 의학사서와 의학주제전문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게 된 계기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의학사서의 역할 이해 정도

의학사서의 역할을 더욱 잘 이해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문항에서, 31명의 응답자가 ‘그렇다’고 하였고(58.5%), 18명은 ‘매우 그렇다’라고 하였으며(34.0%), 4명은 ‘보통이다’로 응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전혀 그렇지 않다’ 즉, 의학사서 역할에 대하여 이해도가 좋아지지 못하였다는 응답은 없었다. 강의 시간에 의학사서의 역할에 대하여 시간을 달리 배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자들은 수강 후 의학사서

의 역할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주입식으로 정의된 의학사서의 역할을 암기,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의학용어, 의학분야 정보원을 경험해 나가는 과정에서 의학사서의 역할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자각한 것으로 생각된다.

(3) 의학정보서비스의 유형과 기능에 대한 이해 정도

의학정보서비스의 유형과 기능에 대한 이해 정도가 좋아졌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39명(73.5%)이 '그렇다', 9명(17.0%)이 '매우 그렇다'라고 답하여, 교과목 수강이 의학정보서비스에 대한 많은 지식을 습득하게 한 계기로 느끼고 있는 듯하다.

(4) 의학도서관 취업 의사 정도

그러나 의학도서관으로의 취업의사 혹은 공공도서관 등에서 의학정보서비스를 담당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앞선 문항들, 즉 의학사서와 의학정보서비스 이해 수준과 관련된 질문들 보다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의학도서관으로의 취업의사에 대하여,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로 답한 응답자는 각각 14명(26.4%), 10명(18.9%)으로 전체 응답자의 45.3%에 달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다'로 응답한 수가 각각 6명, 5명으로, 의학사서와 의학정보서비스에 대한 이해와 관련 지식 습득이 의학도서관을 진로로 결정할 만큼 결정적인 영향력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공공도서관 등에서 의학정보서비스를 담당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그렇지 않다' 2명, '그렇지 않다' 16명으로 응답자의 34%가 취업 후 의학

주제서비스 담당 의사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답하였다. 담당할 의사가 있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14명으로 26.4%에 해당한다. 분석 결과에서 볼 때, 수강생들은 의학사서나 의학정보서비스에 대한 이해 능력과 지식은 향상되었지만, 교과목 수강이 취업 의사와 진로 결정을 강화하는 데는 영향력이 없음을 보여주었다.

(5) 전문직으로서 의학사서의 자부심 자각 정도

의학사서는 전문직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고 확신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34명의 응답자가 '그렇다',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하여, 응답자의 83%가 의학사서라는 직무나 직업에 대하여 전문성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질문들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결과는 <표 7>과 같이, 의학사서와 의학정보서비스에 대한 이해도 점수가 의학도서관 취업이나 의학정보서비스를 담당할 의사에 대한 점수보다 더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앞의 빈도분석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결과로, 교과목의 수강이 지식을 습득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나, 진로 결정력을 증가시키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으로 재차 해석될 수 있다.

1개 과목을 수강한 경우와 2개 과목을 모두 수강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학생들의 학년에 따라서 각 질문에 대한 응답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수강 과목 수에 따른 각 질문들에 대한 평균 비교 분석(독립표본의 T-검정), 학년별 평균비교 분석(일원배치분산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수강 과목 수, 학년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설문 내용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의학사서와 의학주제전문서비스의 필요성 인지	53	3.00	5.00	4.0566	.53404
의학사서의 역할 이해도	53	3.00	5.00	4.2642	.59326
의학정보서비스의 유형과 기능에 대한 이해도	53	3.00	5.00	4.0755	.51325
의학도서관 취업 의사	53	1.00	5.00	3.3208	1.22118
의학정보서비스 담당 의사	53	1.00	5.00	3.0189	1.06501
전문직으로써 의학사서의 자부심 인식 정도	53	2.00	5.00	4.1509	.79412

5.2.3 비수강생들과의 비교 분석

의학사서와 의학주제전문서비스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교과목을 수강하지 않은 학생들과 수강한 학생들 간에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비교를 위하여, 3~4학년 학생 중, 2개의 교과목을 모두 수강하지 않은 학생 12명(전수)을 대상으로 의학사서와 의학주제정보서비스에 대한 인식수준을 조사하고, 수강자들의 결과와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의 〈표 8〉과 같다.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학사서와 의

학정보서비스의 필요성 인지, 의학사서의 역할 이해도, 의학정보서비스의 유형과 기능에 대한 이해도에 있어서, 수강자 집단이 비수강자 집단보다 평균이 높았으며,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여, 강의를 통하여 의학사서와 의학주제전문서비스에 대한 지식 습득 수준이 높아질 수 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의학도서관 취업 의사와 의학정보서비스 담당 의사에 있어서는, 수강자 집단의 평균이 비수강자 집단의 평균 보다 낮다. 교과목을 수강

〈표 8〉 설문 내용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t	유의확률
의학사서와 의학주제전문서비스의 필요성 인지	53	3.00	5.00	4.0566	3.125 *	0.003
	12	1.00	5.00	3.2500		
의학사서의 역할 이해도	53	3.00	5.00	4.2642	3.772 *	0.000
	12	1.00	5.00	3.2500		
의학정보서비스의 유형과 기능에 대한 이해도	53	3.00	5.00	4.0755	4.743 *	0.000
	12	1.00	4.00	3.0000		
의학도서관 취업 의사	53	1.00	5.00	3.3208	-0.496	0.622
	12	3.00	4.00	3.5000		
의학정보서비스 담당 의사	53	1.00	5.00	3.0189	-2.121 *	0.038
	12	2.00	5.00	3.7500		
전문직으로써 의학사서의 자부심 인식 정도	53	2.00	5.00	4.1509	-0.451	0.679
	12	4.00	5.00	4.2500		

* p<0.05

하지 않은 경우, 의학사서나 의학정보서비스에 대하여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듯 하고, 수강을 하게 되는 경우, 서비스의 특수성이나 주제 지식 습득의 어려움을 인지하게 되어, 꺼려지는 마음을 다소 내재하게 되는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취업 의사에서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고, 의학정보서비스 담당 의사에서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다.

마지막으로 의학사서에 대한 자부심 인식에 있어서는, 수강자 집단 평균이 4.1509, 비수강자 집단 평균이 4.2500으로 다른 질문 항목의 점수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수강자 집단의 자부심이 다소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통계적 의미는 없다.

비수강자와의 차이 분석을 종합하면, 지식 습득과 자부심 각각 측면에 의학주제전문서비스 교과목 수강이 영향을 주지만, 진로결정에 있어서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알 수 있으며, 수강 여부와 관계없이, 문헌정보학과의 학생들은 의학사서를 가치 있는 직업군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6. 결론 및 논의

주제전문사서와 주제전문서비스의 필요성은 항상 강조되어 왔지만, 주제전문사서의 양성방법은 체계적인 틀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는 예비 사서들로 하여금 주제전문사서와 주제전문서비스에 대한 지식과 인식을 갖출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마련해 주지 못하였고, 취업 후 주제전문사서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업무의 이해와 적응에 비효율성을 조장할

가능성도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배경으로, 주제전문사서와 주제전문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 문헌정보학과 교육과정 내에서의 주제전문사서 양성 교과목 운영 사례 조사와 제시를 궁극적 목표로 설정하였다.

주제전문사서 양성 방안에 관한 문헌조사를 하였고, 주제전문사서 양성 방법의 몇몇 사례를 제시하였고, 상명대학교 문헌정보학과의 주제전문 교과목 강의가 주제전문사서와 주제전문서비스에 대한 인식 제고에 도움이 되는지를 알아보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문헌조사를 통하여, 주제전문사서 양성은 학부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과 현실 여건을 반영하여 재교육 프로그램과 연계 시스템에 참여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입장 등이 제안되었음을 밝혔고, 재교육 프로그램 참여는 현재의 보편적 시스템으로 볼 수 있고, 이를 발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학부 교육에서의 교육 운영 가능성과 효과를 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였다.

학부에서 주제전문사서 양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대학으로는, 전남대학교, 청주대학교, 상명대학교가 있었으며, 전남대학교는 의학, 법률의 2가지 주제, 청주대학교와 상명대학교는 의학 주제를 교육하고 있었다. 주제전문사서 양성을 위한 교육을 담당하는 대학은 3개교로 매우 소수이며, 이들 대학도 의학과 법률 주제에 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양한 주제 분야의 이용자에게 응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주제에 대한 교육이 실시 될 수 있는 방안 또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상명대학교의 주제전문사서 양성을 위한 교과목 운영 사례를 조사하였다. 교과목의 개발 과정, 교과목의 내용 및 운영 방안 등을 제시하였고, 2015년 1학기부터 2015학년도 2학기까지 운영된 2개의 교과목을 모두 수강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학사서와 의학정보서비스에 대한 이해, 의학도서관 취업이나 의학정보서비스를 담당할 의사가 활성화되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학사서에 대한 자부심 정도를 조사하였다. 각 문항들에 대하여 기술통계 및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로 교과목의 수강생들은 의학사서와 의학정보서비스에 대한 지식 습득에서 향상된 태도를 갖게 되었으나, 의학도서관으로의 취업이나 도서관에서 의학정보서비스를 담당하게 된다면 적극적 의사를 취한다기 보다는 어려움이나 생소함이 있음을 더 잘 알게 되어, 더욱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교과목 운영의 효과를 명확하게 위하여, 수강한 교과목의 수에 따라, 학년에 따라, 집단을 나누고 지식 습득과 진로 결정 등에 대한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에서는 교과목을 수강한 집단이 다소 우세한 측면이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었다. 교과목의 수강생과 비수강생의 비교 분석에서는 지식습득에서는 수강생이, 취업의사나 진로결정에는 비수강생이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전문직으로서 의학사서의 가치 평가는 수강생과 비수강생 모두 높았다.

본 연구는 문헌정보학과의 교육과정 안에서 주제전문사서 양성을 위하여 교과목을 운영하였을 때, 주제전문사서와 주제전문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바가 있음을 밝혔으나, 한 대학의 사례에 한정되어 있으며, 단기

간의 결과만을 반영하였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강생들의 수강이력과 개인 지식 등의 변수가 고려되지 않았으므로, 이 결과가 문헌정보학 교육, 사서교육, 주제전문전문서비스의 발전·개선 등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측면의 추가·보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첫째, 주제전문사서 양성을 위한 교과목을 운영하는 다른 대학교(예를 들어, 전남대학교, 청주대학교)에 대한 조사, 다른 주제전문지식을 다루는 교과목을 개발 운영한 뒤의 조사 등을 추가하여, 결과의 일반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 주제전문지식 습득 측면에서는 학부 교육과정에서의 운영이 대체로 적합한 방안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진로결정 및 취업 의사 등을 강화시키는 데는 큰 영향력을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이유를 분석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수강생에 대한 인터뷰, 강의시간 교육활동에 대한 관찰 등이 추가 보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셋째, 의학도서관 취업 의사, 의학주제서비스 담당 의사에 있어서, 비수강자에 비하여 수강자의 평가 점수가 더 낮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 결과에 대하여, 의학주제 혹은 주제전문사서에 대한 지식이 확대되면서, 어렵고 낯선 느낌이 강화되기 때문이라고 추정하였으나, 이러한 추정을 더욱 일반화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변수가 조사에 개입되었는지를 분석해야 할 것이며, 방법론적으로는 구체적인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면접법 등을 활용하거나 익명으로 제공되는 강의평가 결과 등을 참조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 [1] 강미혜. 2002. 주제전문사서의 양성을 위한 주제서지과목 과제방안 연구 - 법률주제전문사서 양성을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6(3): 49-68.
- [2] 국립중앙도서관. 『사서교육 홈페이지』.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online] <<http://edu.nl.go.kr/>>
- [3] 김휘출. 2003. 통합형디지털참고봉사를 위한 기반 연구: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7(2): 169-186.
- [4] 남영준, 허운순. 2005. 주제전문사서 양성을 위한 문헌정보학 교과과정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6(3): 39-64.
- [5] 남영준. 2011. 우리나라 문헌정보학과 교과목의 정보서비스 영역에 대한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2(2): 343-362.
- [6] 노영희 외. 2008. 주제전문서비스 운영실태 분석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9(4): 97-123.
- [7] 변제연. 2012. 『주제전문사서의 직업전문성 요구에 대한 대학도서관 실무자와 문헌정보학 전공학생의 인식 차이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8] 한국도서관협회. 『사서자격 교육기관 리스트』.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online] <http://www.kla.kr/license/sub03_01_01.do>
- [9] 상명대학교. 2016학년도 문헌정보학과 교과과정. 서울: 상명대학교. [online] <http://smsg.smuc.ac.kr:9100/haksa/homepage/view_subject_list.jsp?SHYR=1&SUST=121B>
- [10] 안인자 외. 2008. 국내 주제전문사서의 직무분석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2(4): 533-549.
- [11] 안인자 외. 2009. 주제전문사서를 위한 능력중심 교육과정 개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3(1): 333-361.
- [12] 윤영대. 2003. 의학사서직의 교육에 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4(1): 131-146.
- [13] 전국대학법학도서관협의회. 『전국대학법학도서관협의회 홈페이지』. 서울: 고려대학교. [online] <<http://www.klla.org/>>
- [14]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과과정』. 광주: 전남대학교. [online] <<http://list.jnu.ac.kr/user/indexSub.action?codyMenuSeq=5633&siteId=list&menuUIType=top>>
- [15] 정재영. 2007. 주제전문사서 양성을 위한 협력모형구축에 관한 연구: 도서관 관련 주체들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1(1): 391-409.
- [16] 정재영. 2009. 『대학도서관의 주제전문사서제 운영방안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0(3): 119-136.

- [17] 청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과과정』 청주: 청주대학교, [online]
 <<http://cjlis.net/?c=about/about6>>
- [18] 최홍식. 2012. 대학도서관의 주제전문사서에 대한 이용자 인식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3(1): 303-319.
- [19] 홍명자. 2006.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도서관의 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7(2): 345-373.
- [20] 한국의학도서관협회. 『한국의학도서관협회 홈페이지』. 서울: 한국의학도서관협회. [online]
 <<http://www.kmla.or.kr/>>
- [21] 황재영. 2011. 전문도서관의 주제전문서비스 운영 현황과 사서의 인식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2(4): 137-158.
- [22] Noh, Dong-Jo et al. 2009. "The Current State of and Needs for Subject Specialist Librarians in Korea." *Korea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6(2): 43-63.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1] Kang, Mia-Hye. 2002. "A Study on the Assignment of the Subject Bibliography Course for the Education of the Subject Specialist Libraria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6(3): 49-68.
- [2] National Library of Korea. *Saseogyoyook Homepage*. Seoul: National Library of Korea. [online]
 <<http://edu.nl.go.kr/>>
- [3] Kim, Hwi-Chool. 2003. "A Study on the Preparation for Collaborative Digital Reference Service in Korea University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7(2): 269-286.
- [4] Nam, Young-Joon and Heo, Oun-Soon. 2005. "A Study on the Curriculums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for Subject Specialist."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6(3): 39-64.
- [5] Nam, Young-Joon. 2011. "An Analysis on the Information Service of the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Curriculum in South Kore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2(2): 343-362.
- [6] Noh, Younghee et al. 2008. "An Analysis of Subject Specializes Services in Kore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9(4): 97-123.
- [7] Byun, Jea Yeon. 2012. *A Study on the Perception Difference Between University Library*

- Practitioners and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tudents Regarding the Professionalism Requirement of Subject Specialist Librarians*. M.A. thesis, Departmen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ungkyunkwan University, Korea.
- [8] Korean Library Association. *Saseojagyeok Kyoyookgigwan List*. Seoul: Korean Library Association. [online] <http://www.kla.kr/license/sub03_01_01.do>
- [9] Sangmyeong University. *2016 haknyundo Moonheonjeongbohakgwa Kyogwagwajeong*. Seoul: Sangmyeong University. [online] <http://smsg.smuc.ac.kr:9100/haksa/homepage/view_subject_list.jsp?SHYR=1&SUST=121B>
- [10] Ahn, In-Ja et al. 2008. "A Study on the Job Analysis of the Subject Specialist Librarians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2(4): 533-549.
- [11] Ahn, In-Ja et al. 2009. "Competency Based Curriculum Development of Subject Specialist Librarian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3(1): 333-361.
- [12] Yoon, Yung-Dai. 2003. "A Study of Education for Medical Librarianship."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4(1): 131-146.
- [13] Korean Law Library Association. *Korean Law Library Association Homepage*. Seoul: Korea University. [online] <<http://www.klla.org/>>
- [14] Chonnam National University. *Munheonjeongbohakgwa Kyogwagwajeong*. Gwangju: Chonnam National University. [online] <<http://list.jnu.ac.kr/user/indexSub.action?codyMenuSeq=5633&siteId=list&menuUIType=top>>
- [15] Chung, Jae-Young. 2007. "A Study on the Cooperation Model of Subject Specialist Upbringing Plan: Focusing on the Role of the Subjects Related to Library."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1(1): 391-409.
- [16] Chung, Jae-Young. 2009. "A Study on Operational Plan of Subject Specialist Librarian at Academic Libraries: Focus on Case Analysis of Three Academic Librari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0(3): 119-136.
- [17] Cheongju University. *Munheonjeongbohakgwa Kyogwagwajeong*. Cheongju: Cheongju University. [online] <<http://cjlis.net/?c=about/about6>>
- [18] Choi, Hung-Sik. 2012. "A Study of Reconsideration for Users in the Subject-Special Librarians of the University Librari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3(1): 303-319.

- [19] Hong, Myung-Ja. 2006. "A Study on the Standards for Approval of Korean Law School Librar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7(2): 345-373.
- [20] The Korean Medical Library Association. *The Korean Medical Library Association Homepage*. Seoul: The Korean Medical Library Association. [online]
<<http://www.kmla.or.kr/>>
- [21] Jae-Young Hwang. 2011. "An Analysis on Current Status of and Perception of Subject Specialized Services in Korean Special Librari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2(4): 137-158.